
소상공인 창업자특성과 창업준비과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영욱*, 하규수**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Effect of Prepara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Young-Uk Kang*, Kyu-Soo Ha**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초기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여 소상공인 성공창업을 위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이 인지하는 창업성과(매출액, 순이익, 결과기대감)를 측정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로 창업가특성(경험, 심리적특성), 창업 준비과정, 매개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설문대상은 창업초기 소상공인 427명으로부터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수집하고,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업종경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창업준비기간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실패경험과 자기자본비율이 매출액과 순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위치는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결과기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특성과 창업 준비과정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의 하였고, 연구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소상공인, 창업자특성, 창업 준비과정, 창업성과, 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ek the policies and the plans for the successful small business start-up through an exploratory study ab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rate of small business start-up.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 business(sales revenue, net profit, and outcome expectancy), the characteristics of founders (experienc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prepara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 were measur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self-efficacy was measured as a parameter. 427 small business owners were targeted and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em. For the data proces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18.0 was conducted. The findings demonstrated the experience in the same business, the need for achievement, the risk-taking propensity, the preparation period for business start-u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f-efficacy, and experience of failure and the ratio of net worth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les revenue and net profit, and the locus of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utcome expectancy through the self-efficacy, a parameter. It was also noted the self-efficacy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var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m and the preparation process of the business start-up. Based on the those finding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about the limits of the study, future policies and studies were made.

Key Words : small business owners, characteristics of founders, preparation of business start-up, performance after business start-up,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y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10월 2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0월 23일

1. 서론

정부에서는 IMF를 겪으면서 실업급여 지급이나 공공근로 등의 단기적인 대책위주의 정책에서 항구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을 하였다. 정부 이외에도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창업지원을 하면서 창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벤처열풍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소자본 창업자인 소상공인의 창업을 활성화시켰다.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2009년 우리나라 전체사업체수에서 소상공인(2,685,856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5%, 전체종사자수에서 소상공인 종사자수(5,217,92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38.9%로 소상공인 창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09년도 한해 개인사업자의 신규창업자는 988,058명, 폐업자는 805,506명으로 창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은 81.5%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한해 개인사업자의 신규창업은 988,058명, 폐업은 805,506명에 달하는 실정이다[9]. 소상공인 창업이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정부정책은 창업의지를 높여 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2010년 자영업자 비중이 28.8%로 OECD 평균 17.5%의 약 1.65배로 높은 실정이다[9]. 이러한 창업의지 연구에서 탈피하여 창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창업성과는 창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며, 향후 성공창업을 이루게 한다. 그러나 창업초기 소상공인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2008년 국제청 통계연보에서 폐업자의 사업존속연수는 2년 미만인 4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3]. 이것은 소상공인의 초기 생존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연구의 대상을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수강하는 창업초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경영성과의 측정변수인 매출액, 순이익 외에 창업성공에 대한 결과기대감을 추가하여 창업초기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게 창업성과라는 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경험(성공경험, 실패경험, 업종경험), 심리적 특성(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 창업 준비과정(창업준비기간, 자기자본비율)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자기효능감의 매개요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여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과 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창업자특성

1970년대 후반부터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창업자의 특성은 특히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업의 창업 준비단계부터 경영단계까지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6].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성공적인 창업자의 개인적 특징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경험, 심리학적 특성 등을 다루어 왔다. 본 연구는 위 변수들 중에서 경험과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한다.

창업자는 업종경험, 창업경험 등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등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신규로 습득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기존 연구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성공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성공적인 창업자는 창업자의 업종경험을 통해 업종을 이해하고 그 업종의 문제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창업경험은 기존 창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자가 자신의 경험을 열심히 학습한다면 성공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23].

Eden & Kinnar[27]에 따르면 이전의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반면,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도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을 구분하여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자와 비창업자를 구별 짓는 특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21][29][30]. 이들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 성향은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어떤 일들을 가능한 잘 이행하려는 바람 또는 경향으로 Murray[36]에 의해 현대적 의미가 정의되었다. Komives[33]는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들의 높은 성취욕구가 성공적인 창업자의 공통특성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Begley and Boyd[21]는 성취욕구와 재무적 성과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들은 목표를 수립하고 경쟁을 통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위치(locus of control)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어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Rotter[38]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제위치 라는 성격차원을 확인하였다.

Brockhaus[23]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1975년 신규 창업가부터 취득한 통제위치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1978년에도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가는 사업을 그만둔 기업가보다 높은 내재론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propensity)은 개인이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회를 잡기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창업자의 특성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Begley and Boyd[21]는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영자가 높은 재무적 성과를 나타낸다고 보았으며, 과도하게 높은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중간 정도의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창업과정은 실패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냐에 따라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냐가 결정된다.

성격이 일반 혹은 특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성격 5요인과 문화 간 사회적 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에서 외향성과 개방성이 문화 간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

였다[35].

2.2 창업 준비과정

2.2.1 창업 준비기간

창업 준비기간은 사업 구상에서부터 개업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창업자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창업 준비기간 동안 사업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한다. 체계적인 창업 준비는 창업 이후의 사업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들도 창업 준비가 사업체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영관행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13].

201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창업 준비기간이 1~2년일 때 월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이 가장 높다고 조사되었다[8]. 이러한 결과는 창업 준비기간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2.2 자기자본비율

창업자금은 자본의 귀속형태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되고, 자기자본은 창업자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하며, 타인자본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약정된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채권자에게 상환되는 자본을 말한다[11].

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창업자금을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타인자본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사금융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의 창업자금지원시 창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중요한 평가척도 중에 하나이며, 자기자본비율 50%범위 내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창업초기 많은 창업자금의 조달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적소에 투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5][42]. 창업과정에서 자금부족은 창업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창업 후의 운영 및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13].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창업자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서 사업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가 창업을 구체화하는 가장 큰 과제이다[5]. 기업의 자금조달은 인체의 혈액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과도한 부채비율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창업과정을 저해하고 업체의 운영과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13].

2.3 창업성과

기존 연구에서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객관적 지표는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로 나누어진다.

창업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신뢰성이 있다는 주장과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며, 경영성과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해 있다[25].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정보화에 열악하고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인 성과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49.8%가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4.0%만이 판매 시점관리(POS) 기기를 보유하고 있고, 51.2%만이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보유하고 있다[8].

창업성과 측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객관적이고 통일된 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다[1].

박정기[5]는 소상공인 사업성과 측정에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투자 수익률, 경쟁적 지위, 마케팅의 혁신수준, 사업만족도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로 소상공인 창업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이 인지하는 창업초기 월평균 매출액, 월평균 순이익을 객관적 지표로, 결과기대감을 주관적인 지표로 사용하였다.

결과기대감(outcome expectancy)이란 개인의 과업성과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되어지는 결과에 대한 판단이다. 결과 기대감은 주어진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자신의 판단으로 정의된다[15]. Bandura[17]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구성원이 기꺼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초기의 기대감, 성공적인 과업수행활동, 그리고 지속적이고 높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성과의 예견변수로 결과기대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과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 궁극적으로 창업성공에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2.4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 된다[15].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2].

첫째, 자기효능감의 기본적인 개념과 측정에 관한 것이다[10][39].

둘째,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과 특정 종속변수와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다. 특정 종속변수로는 특히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검증의 연구가 많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능력과 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적 동기부여(intrinsic motivation)가 발생된다[16]. 내적 동기부여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직무에 몰입하도록 한다[20].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위의 시작여부, 시작된 행위의 성취를 위한 노력의 정도, 행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19][31][18][26][34].

Stajkovic and Lurthans[41], Judge and Bonof[32]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보다 높은 업무성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문성·박성철[2]은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과 산출물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andura는 기대를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감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과장화 하는 개인들의 신념이다[17]. 자기효능감은 미래에 얻을 결과물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준다. 결과 기대감은 과업달성을 통해 원하는 결과물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개인의 신념으로 이는 행동의 결과이지 행동 그 자체는 아니다.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감에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17][28].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경영성과의 예견변수인 결과기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보고 자기효능감과 영향을 주고 받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서혜석[7]은 신세대 병사의 자기효능감이 군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군 생활 적응 간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세대병사의 자기효능감은 군생활 적응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진

로결정수준과 군생활 적응 간에 불완전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2.5 창업자특성, 창업 준비과정, 자기효능감, 창업성과간의 선행연구

Eden & Kinnar[27]는 이전의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반면,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Begley and Boyd[21]는 성취욕구와 재무적 성과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Brockhaus[23]는 신규 창업가부터 취득한 통제위치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꾸준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가는 사업을 그만둔 기업가보다 높은 내재론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egley and Boyd[21]는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경영자가 높은 재무적 성과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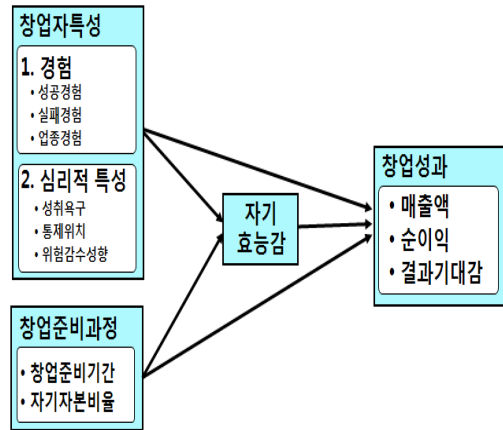
정성환·김해룡[13]은 창업 준비가 사업체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영관행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창업과정에서의 자금 부족은 창업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창업 후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시작된 행위의 성취를 위한 노력의 정도, 행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19][31][18][26][34].

임창희[12]는 대학생의 과거성공과 성적 사이에 자기효능감을 검증한 결과 과거성공을 통제된 상태에서 자기효능감의 성적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한 반면, 과거성공의 영향력은 감소되어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를 확인하였다.

창업자특성과 창업 준비과정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23][27][21][29][30], 창업 준비과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8][5][42]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수행하는 매개역할[7][12]도 함께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에 제시된 연구모형이 의미하듯이, 본 연구는 소상공인 창업자특성, 창업 준비과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창업자특성과 창업준비과정으로 나뉘며, 창업자특성은 경험(성공경험, 실패경험, 업종경험)과 심리적특성(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창업준비과정은 창업준비기간과 자기자본비율로 구성하였고, 매개변수는 자기효능감으로 측정하였다. 창업성과는 매출액, 순이익, 결과기대감으로 측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창업자특성, 창업 준비과정, 창업성과, 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감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2011년 3월 21일부터 2011년 4월 5일까지 16일간 센터 상담사, 기 창업교육 수료자, 리서치회사 관계자,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을 수정·보완한 후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수집도구로는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을 수강하는 창업초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4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700부를 인쇄하여 동작구청, 양천구청, 노원구청, 광진구청, 금천구청, 동작노인복지관과의 공동개최 창업 교육장에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창업자의 설문지 513부가 회수되었으며, 답변이 불성실한 86부를 제외한 427부를 최종분석자

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2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자 53.6%, 여자 46.4%의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연령은 20대 이하 9.2%, 30대 35.1%, 40대 32.1%, 50대 이상 22.6%이며, 학력은 중졸이하 8.7%, 고졸 39.7%, 대졸 46.2%, 대학원졸 이상 5.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혼여부는 미혼 23.7%, 기혼 62.3%, 기타 14.1%로 나타났다. 창업형태는 도소매업 34.7%, 숙박 및 음식점업 22.5%, 교육서비스업 7.0%, 개인서비스업 13.1%, 부동산 및 임대업 1.9%, 제조업 11.5%,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 4.9%, 기타 4.2%의 분포를 보였다.

3.3 변수의 측정

창업가 특성은 경험, 심리적 특성요인으로 정의하고, 심리적 특성은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는 Steers & Braunstein[40]의 문항을 참조하였으며, 박정기[5], 황보윤[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정리하여 성취욕구 4개 문항, 통제위치 3개 문항, 위험감수성향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창업성과는 매출액, 순이익, 결과기대감의 3가지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결과기대감은 창업자가 판단하는 창업성공에 대한 결과기대감으로 정의하고 Riggs & Knight[37]의 결과기대감을 창업분야에 적절하게 연구자가 목표매출액 달성, 창업성공, 창업초기고객확보, 목표수익 달성을 묻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창업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업(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의 강도라고 정의하고, Chandler & Jansen[24]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김혜룡[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에서 4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측정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방법, 요인수 추출 방법으로는 고유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카이저뮤

직, 그리고 요인회전방법으로는 직각회전인 배리맥스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수들 중에서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된 성취욕구, 통제위치 및 위험감수성향 측정도구들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1>에 제시되어 있으며, 내생변수들 중에서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된 자기효능감 및 결과기대감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2>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분석결과가 제시된 <표1>과 <표2>를 보면, 모든 문항들이 해당 요인에 .50 이상의 요인적재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들이 해당 요인에 적절히 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들은 만족스러운 수렴 및 판별타당도(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표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신뢰도 계수가 성취욕구는 .792, 통제위치는 .644, 위험감수성향은 .838, 자기효능감은 .826, 결과기대감은 .832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가 모두 최소한 .6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분석에서는 각 척도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합의 평균을 계산하여 각 변수의 척도 값으로 삼았다. 따라서 모든 이론적 변수들의 값은 1에서 5의 범위를 갖는다.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 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외생변수 측정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질문지 문항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성취욕구1		0.757	
성취욕구2		0.758	
성취욕구3		0.834	
성취욕구4		0.669	
통제위치1			0.548
통제위치2			0.780
통제위치3			0.770
위험감수성향1	0.646		
위험감수성향2	0.806		
위험감수성향3	0.865		
위험감수성향4	0.851		
고유값	3.968	1.563	1.269
분산설명비율	36.074	14.206	11.536
누적분산비율	36.074	50.279	61.815

주: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인 경우만 제시

〈표 2〉 내생변수 측정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질문지 문항번호	요인1	요인2
자기효능감1	0.766	
자기효능감2	0.717	
자기효능감3	0.756	
자기효능감4	0.799	
결과기대감1		0.710
결과기대감2		0.622
결과기대감3		0.830
결과기대감4		0.773
고유값	4.529	1.362
분산설명비율	56.618	17.025
누적분산비율	56.618	73.643

주: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인 경우만 제시

〈표 3〉 척도들의 신뢰도 및 기술통계

변수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Alpha
성취욕구	4	4.2652	0.54740	.792
통제위치	3	4.0234	0.67963	.644
위험감수성향	4	3.5615	0.75674	.838
자기효능감	4	3.9221	0.63120	.826
결과기대감	4	3.9409	0.62460	.832

3.4 자료의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8.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경로분석방법(path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경로분석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내생변수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행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일련의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창업자경험 변수들인 성공경험, 실패경험 및 업종경험 변수의 세 변수는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가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설정오류(specification error)로 인한 모수 추정치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 연령, 교육, 혼인지위 및 가족 수의 5개의 인구통계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 성 변수는 남자는 1, 여자는 0의 값을 갖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였고, 혼인 지위는 기혼은 1, 미혼은 0의 값을 갖는 가변수로 전환시켜 분석에 투입하였다. 경로분석 실시에 앞서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선형 및 비선형부분으로 분해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를 검토하였으

며, 그 결과 대부분의 관계가 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난 일부 관계에 대해서는 R^2 와 Eta^2 를 비교하는 한편 그래프를 그려서 비선형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변수들의 변환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비선형관계는 없었다.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가 .80이 넘거나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 넘으면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4>에 제시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관계수가 .80 이상 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분산팽창지수를 계산한 결과 그 값이 2를 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 간에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3개의 창업자경험 변수, 3개의 심리적 특성 변수, 2개의 창업 준비과정 변수 등 8개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보면, 업종경험,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창업 준비기간 변수는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을 맺고 있는 반면에 성공경험, 실패경험 및 자기자본비율은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맺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의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 지표 중 하나인 매출액 간의 관계를 보면, 실패경험, 위험감수성향 및 자기자본비율의 세 변수만 매출액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 다음으로, 8개의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 지표인 순이익 간의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실패경험과 자기자본비율의 두 변수만 순이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8개의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 지표인 결과기대감 간의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업종경험,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창업 준비기간 및 자기효능감의 6개의 변수가 결과기대감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6
1.성공 경험 ¹⁾						
2.실패 경험 ²⁾	.367**					
3.업종 경험 ³⁾	.113**	.130**				
4.성취 욕구	.058	.010	.214**			
5.통제 위치	.020	-.072	.040	.281**		
6.위험감수성향	-.007	.008	.051	.410**	.256**	
7.창업준비기간	.050	.123**	.049	.133**	.083*	.189**
8.자기자본비율	.137**	.032	-.064	.050	-.029	.027
9.자기효능감	.047	-.023	.166**	.496**	.265**	.374**
1.매출액	-.029	.088*	.011	.002	-.075	.089*
11.순이익	-.037	.085*	.028	.007	-.072	.078
12.결과기대감	.054	.002	.097*	.375**	.305**	.299**

* P < .05, ** P < .01; 1 1=있음, 0=없음; 2 1=있음, 0=없음; 3 1=있음, 0=없음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계속)

구 분	7	8	9	10	11
1.성공경험 ¹⁾					
2.실패경험 ²⁾					
3.업종경험 ³⁾					
4.성취욕구					
5.통제위치					
6.위험감수성향					
7.창업준비기간					
8.자기자본비율	.144**				
9.자기효능감	.206**	.001			
1.매출액	.008	.103*	.050		
11.순이익	.021	.096*	.062	.657**	
12.결과기대감	.157**	.058	.682**	.100*	.101*

* P < .05, ** P < .01; 1 1=있음, 0=없음; 2 1=있음, 0=없음; 3 1=있음, 0=없음

4.2 경로분석 결과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경로분석방법을 이용하였고, 성, 연령, 교육, 혼인지위, 가족 수 등 5개의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창업자경험, 심리적 특성 및 창업 준비과정 변수 등 8개의 독립변수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된 계수는

모두 경로계수(path coefficients), 즉 표준화회귀계수값(Beta)들이다.

<표 5>에서 우선 8개의 독립변수(세 개의 창업자경험 변수, 세 개의 심리적 특성 변수 및 2개의 창업 준비과정 변수)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세 개의 창업자경험 변수 중에서 업종경험($\beta=.073, p<.05$)만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특성변수의 경우에는 성취욕구($\beta=.342, p<.01$), 통제위치($\beta=.124, p<.01$) 및 위험감수성향($\beta=.196, p<.01$)의 세 변수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창업준비과정 변수 중에서는 창업 준비기간($\beta=.118, p<.01$) 변수만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자기자본비율 변수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업종 경험이 있는 경우, 성취욕구, 통제위치가 내재적일수록 및 위험감수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창업 준비기간이 길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교육($\beta=.094, p<.05$) 변수만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분석에 포함된 선행변수들이 자기효능감 변이의 33.3%를 설명하고 있다.

〈표 5〉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영향 분석결과

구 분	매개변수=자기효능감		
	Beta	t값	P
통제변수			
성 ¹⁾	.055	1.075	.142
연령	-.082	-1.379	.085
교육	.094*	1.799	.037
혼인지위 ²⁾	.092	1.392	.083
가족수	-.018	-.299	.383
창업자경험			
성공경험 ³⁾	.030	.610	.271
실패경험 ⁴⁾	-.032	-.683	.248
업종경험 ⁵⁾	.073*	1.662	.049
심리적 특성			
성취욕구	.342**	6.954	.000
통제위치	.124**	2.719	.004
위험감수성향	.196**	3.999	.000
창업 준비과정			
창업준비기간	.118**	2.676	.004
자기자본비율	-.039	-.897	.185
R²	.333**		

* P < .05, ** P < .01; 1 1=남, 0=여; 2 1=기혼, 0=미혼; 3 1=있음, 0=없음; 4 1=있음, 0=없음; 5 1=있음, 0=없음

〈표 6〉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영향 분석결과

구 분	종속변수=매출액			종속변수=순이익			종속변수=결과기대감		
	Beta	t값	P	Beta	t값	P	Beta	t값	P
통제변수									
성	.089*	1.715	.044	.053	1.023	.154	.033	.630	.265
연령	.045	.736	.231	.015	.248	.402	-.064	-1.071	.143
교육	.070	1.321	.094	.064	1.204	.115	.024	.463	.322
혼인지위	-.027	-.396	.346	-.029	-.427	.335	.130*	1.954	.026
가족 수	.098	1.643	.051	.105*	1.743	.042	-.021	-.353	.362
창업자경험									
성공경험	-.072	-1.210	.114	-.080	-1.345	.090	-.011	-.256	.399
실패경험	.111*	1.963	.025	.112*	1.975	.025	.040	.982	.164
업종경험	.013	.250	.402	.032	.603	.274	-.028	-.716	.238
심리적 특성									
성취욕구	-.054	-.867	.194	-.056	-.875	.191	.026	.566	.286
통제위치	-.090	-1.627	.053	-.088	-1.578	.058	.122**	3.034	.002
위험감수성향	.092	1.510	.066	.085	1.395	.082	.029	.654	.257
창업 준비과정									
창업 준비기간	-.061	-1.127	.131	-.044	-.810	.210	.000	.009	.497
자기자본비율	.118*	2.230	.013	.111*	2.089	.019	.051	1.332	.092
매개변수									
자기효능감	.079	1.277	.101	.085	1.356	.176	.629**	13.943	.000
R^2		.063 [*]			.054*			.491**	

8개의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모두 경로계수(path coefficients), 즉 표준화회귀계수값(Beta)들이다. 우선 <표 6>에서 창업성과 지표 중 매출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9개의 선행변수(8개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들 중에서 실패경험($\beta=.111, p<.05$)과 자기자본비율($\beta=.118, p<.05$)의 두 변수만이 매출액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성공경험, 업종경험, 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창업 준비기간 및 자기효능감 변수들은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5개의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beta=.089, p<.05$) 변수가 매출액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에 포함된 선행변수들이 매출액 변이의 6.3%를 설명하고 있어 설명력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6>에서 창업성과 지표 중 순이익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매출액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9개의 선행변수들 중에서 실패경험($\beta=.112, p<.05$)과 자기자본비율($\beta=.111, p<.05$)의 두 변수만이 순이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성공경험, 업종경험, 성취

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창업 준비기간 및 자기효능감 변수들은 순이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순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5개의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족 수($\beta=.105, p<.05$) 변수가 순이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에 포함된 선행변수들이 순이익 변이의 5.4%를 설명하고 있어 설명력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6>에서 창업성과 지표 중 결과기대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9개의 선행변수들 중에서 통제위치($\beta=.112, p<.05$)와 자기효능감($\beta=.111, p<.05$)의 두 변수만이 결과기대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성공경험, 실패경험, 업종경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창업 준비기간 및 자기자본비율 변수들은 결과기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위치가 내재적일수록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결과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5개의 통제변수 중에서는 혼인지위($\beta=.130, p<.05$) 변수가 결과기대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에 포함된 선행변수들이 결과기대감 변이의 49.1%를 설명하고 있어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결과의 논의

본 연구결과 첫째, 창업자특성 중 경험에서 업종경험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경험은 창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전 업종경험을 이해하고 그 업종의 사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22]. 이것은 동업종 근무 경험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실패경험은 매출액과 순이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실패경험은 창업성공에 대한 결과기대감을 높이지 못하는 반면, 창업초기 매출액과 순이익을 높이는 요인이다. 실패경험은 기존 창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자가 자신의 경험을 열심히 학습한다면 성공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22]. 그러나 성공경험이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반면,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들이 이전의 성공경험 보다는 창업시장의 침체된 환경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측된다.

둘째, 창업자특성 중 심리적특성에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창업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21][29][30]. 이러한 차이는 소상공인이 창업단계에서 목표매출액을 달성하거나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업종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안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심리적특성 변수인 통제위치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물병원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통제위치 만이 동물병원 재무성과에 영향을 준다[3]는 기존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창업성과는 창업자의 통제위치에 따라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23].

셋째, 창업준비과정의 변수인 창업 준비기간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자기자본비율은

매출액과 순이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준비기간이 사업체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13], 창업 준비기간이 1~2년일 때 월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이 가장 높다고 조사되었던 소상공인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8].

이것은 창업 준비기간이 길수록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으며, 창업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창업 초기단계에서 매출액과 순이익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업종에 따라 창업성과를 얻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창업준비과정의 다른 변수인 자기자본비율이 매출액과 순이익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창업자는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과감히 투자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과 창업준비과정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위 자신감과 성공 결과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실패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재창업자의 초기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정부지원제도를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실패경험자의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또다시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창업교육이 이론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장중심, 인턴중심, 실습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창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청의 시니어비즈플라자, 서울시의 청년창업센터, 장년창업센터 등의 창업보육기관을 늘려 창업자가 충분한 창업 준비기간을 통해 창업실패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감 변수가 경영성과의 예견변수로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그 변수간의 관계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다양한 창업성공 예견변수의 개발과 창업성공과의 관계 규명을 통해 창업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리라 판단된다.

다섯째,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정보화에 열악하고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인 성과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청의 나들가게 지원사업에서 판매시점관리(POS)기기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슈퍼마켓의 정보화 사업이 2012년까지 마무리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정보화사업을 타 업종으로 확장하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소상공인 창업분야의 전략적 시사점과 기여를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표본의 선정에 있어서 설문조사 대상을 서울지역 창업교육에 참석한 창업초기 소상공인으로, 표본수와 표본대상 지역으로 한정되어 소상공인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자와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성과인 매출액, 순이익의 측정이 창업초기의 횡단적 결과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간차를 고려한 추가적인 종적 연구와 업종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창업자특성과 창업 준비과정에 연구 초점을 맞춰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창업성과를 소상공인이 인지하는 매출액 지표로 연구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POS시스템이나 회계시스템의 전산데이터에서 추출한 매출액, 순이익의 객관적인 성과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봉상 (2004).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2] 김문성 · 박성철 (2010). 자기효능감의 결정요인과 산출물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2(2).
 [3] 김정연 (2008). 펫(pet)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과정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4] 김해룡 (2008). 소상공 예비창업자의 성격과 리더십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1(6), 2393-2340.
 [5] 박정기 (2001).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6] 빈봉식 · 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4(3), 135-158.
 [7] 서혜석 (2008). 신세대병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109-131.
 [8] 소상공인진흥원 (2010). 201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중소기업청.
 [9] 소상공인진흥원 (2012). 2011 소상공인 통계집, 소상공인진흥원.
 [10] 오인수 (2002). 일반적 자기효능감: 개념, 측정관련 이슈와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3): 49-72.
 [11] 이석규 (1997). 창업 및 사업성검토, 서울: 다산출판사.
 [12] 임창희 (2010). 과거성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아효능감, 소진, 몰입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경영정보연구, 29(1), 49-78.
 [13] 정성한 · 김해룡 (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4(2), 9-10
 [14] 황보운 (2009) 소상공서비스업종 경영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미용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15]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51-67.
 [16]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s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17]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Cognitive View,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8] Bandura, A., & Wood, R. (1989). Effect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on self-regulation of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89.
 [19] Bandura, A., & Locke, E. A. (2003). Negative self-efficacy and goal effects revisited. Journal of

- Applied Psychology, 88: 87-99.
- [20] Bass, B. M. (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ew York: Free Press.
- [21] Begley T.M .and Boyd D.P.(198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2(1), 79-93.
- [22] Bird, B.(1993). Demographic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Experience and Background, Advance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1, 7-48.
- [23] Brockhaus, R. H.(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Kent, C. A., Sexton, D. J. and Vesper, K. H.(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24] Chandler, G. N. and E. Jansen (1997), Founder Self-Efficacy and Venture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98-102.
- [25] Dess, G. G. & R. Robinson (1984). Measur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absence of objective measures: The case of the privately-held firm and conglomerate business uni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 265-273.
- [26] Earley, P. C. & Lituchy, T. R. (1991). Delineating goals and efficacy effects: A test of three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81-98.
- [27] Eden, D. & Kinnar, J. (1991). Modeling Galatea: Boosting self-efficacy to increase volunteer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770-780.
- [28] Frayne, C. A. & Geringer. J. M. (2000), Self-Management Training for Improving Job Performance: A Field Experiment Involving Salespeopl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3), 361-372.
- [29] Gartner W.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2),696-706.
- [30] Gartner W. B.(1989),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and Practice,14(1), 27-38
- [31] Gist, M. E. (1987).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 472 - 485.
- [32] Judge, T. and Bono, J.(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 trait, 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80-92.
- [33] Komives, J.(1972), A Preliminary Study of the Personal Values of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 in Cooper, A. C. and Komives, J.(eds), Technical Entrepreneurship: A Symposium Milwaukee: Center for Venture Management.
- [34] Lee, C., & Bobko, P. (1994). Self-efficacy beliefs: Comparison of five measu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364-369.
- [35] Mak, AS. and C. Tran (2001), Big Five Personality and Cultural Relocation Factors in Vietnamese Australian Students Intercultural Social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5, 181-201
- [36]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37] Riggs, M. L. & Knight P. A(1994), The impact of perceived group success-failure on motivational beliefs and attitudes: A causal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5), 755-766.
- [38] Rotter,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6), 1-28.
- [39] Sheer et. al.(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3: 899-902.
- [40] Steers, R. M. & Braunstein D. N (1976), A Behaviorally-Based Measure of Manifest Needs in Work Sett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51-266.
- [41] Stajkovic, A. and F. Luthans. (1998).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4: 240-261.

[42] Vesper, K .H.(1990), New Venture Strategie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43] www.nts.go.kr

강 영 욱



- 1992년 2월 : 국민대학교 법학과(법학사)
- 2003년 2월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2009년 2월 : 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박사과정 수료)
- 2006년 2월 ~ 현재 : 소상공인지원원
- 관심분야 : 소상공인, 창업, 리더십, 마

케팅, IT

· E-Mail : abram1@hanmail.net

하 규 수



- 1998년 6월 : 미국 Touro 법과전문대학원(J.D.)
- 1999년 6월 : 미국 Georgetown 법과전문대학원(LL.M.)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 2002년 2월 ~ 현재 : 호서대 학교 벤처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벤처, 창업, 경영전략

· E-Mail : ksh@hoseo.edu